

● 時 論

신축될 국립중앙도서관의 기대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의 신축기공식이 있었다. 3월 19일과 20일에 각각 있었던 일이지만 도서관 기능으로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의 신축이 같은 시기에 이뤄지는 일은 몹시 반가운 일이다. 86년에 다같이 완공될 이 도서관들은 규모의 확충은 물론 현대화된 시설을 갖추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는 공공도서관이 전국에 걸쳐 1백20개 정도밖에 없고 초·중고 대학도서관을 포함한 국공립 도서관과 특수도서관을 다합쳐야 3,720개 안팎(82년말)이다. 이 중 초·중고교 도서관이 3,200여개를 차지하는데 그들은 말이 도서관이지 도서실 규모에 머무는 시설이고, 기능이다.

장서만 해도 공공도서관의 1인당 장서가 우리나라는 0.033권 수준으로 1천명당 33권 꼴인데 이는 일본의 1백명당 46권이나 미국의 99권 영국의 1,390권 덴마크의 3,271권에 비하면 너무 많은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런 算術的인 비교라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 도서관의 장서라고 할 수 있다. 현대의 문화적 요구에 합당한 장서가 얼마나 되겠느냐에 하는 것에 이르면 사정은 또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어쨌든 도서관 문화에 관한한 너무 많이 부끄러운 상태에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형편이다. 새국립도서관이나 국회도서관의 신축과 함께 우리가 원하는 것은 도서관 기능의 획기적인 확충이 이뤄져야 하겠다는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은 한나라 문화의 심장이나 허파에 비유된다. 우리가 지닌 동서고금의 지식과 정보의 자료를 그곳에만 가면 다 알 수 있어야 하는 곳이 국립중앙도서관이다.

이 심장기능이 제대로 체계가 서있지 못했던 우리의 학문형편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지식의 정보와 자료가 말초에서 머물고 있었던 셈이며, 급한 김에 부분적 수혈을 해보아야 심장이나 허파의 기능마비로 별 뜻이 없는 현상을 빚어오고 있었다.

그러므로 새로 지어질 국립도서관에서 우리가 커다란 기대를 보내는 것은 번듯하고

새로운집 때문이 아니다. 중앙도서관의 기능이 새롭게 정비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중앙도서관 체계란 물리적으로 모든 자료가 모여있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散在해 있는 모든 자료들에 관한 목록작성과 비치, 세계각국의 우수한 도서관과의 정보교류 그리고 통로확보같은 것을 갖추는 것이며 그것들을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봉사해줄 수 있는 체계를 말한다.

국회도서관의 경우만해도 가까운 나라사이인 미국의 국회도서관이 소장한 한국관계 자료들에 대한 교류 정비같은 일을 분담해 줄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서관이 지어지는 단계에서 치밀하게 대비돼야 할 일이 많다.

첨단과학의 수준이 우리에게 파급되는시간은 단 며칠이나 몇달에 불과하여 국민학교 어린이들조차도 「퍼스컴」에 대한 관심이 일반화하고 기계의 보급이 기하급수로 늘고 있는 형편이므로 이런기계를 도서관기능과 연계시킬수 있도록 연구되어야할 것이다. 정보나 자료의 개발이나 정비없이는 기계는 단지 고급장난감구실밖에는 못한다.

새 도서관이 컴퓨터를 도입하고 온라인화한 자료의 운용을 가능케할 시설을 갖추리라고 하므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완공을 벌써부터 고대하게 된다.

그와함께 건축기간이 2년씩이나 되므로 그동안의 과학의 발전속도까지를 감안 해서 시설에 임해주기를 아울러 당부하는 마음이다.

**고객 여러분의 꾸준한 지도와 편달로 성장한
폐사는 항상 여러분의 편익에 도움이
되고자 봉사하는 자세로
일하고 있습니다.**

- 유네스코 쿠폰 대행기관
- 단행본 및 학술잡지
- 구미서적 수입판매

科學書籍센터

SCIENCE PUBLICATIONS CENTER

서울特別市 鍾路区 鍾路1街 21番地 光化門私書函 333号

電話 (723) 6719 (725) 0934